東友會報

發行人 鄭 在 哲
印刷人 李 揆 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 8568
交換 (267) 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우의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實世 信心 攝愛 慈

東國雄飛의 한해를

底力발휘 開校80周 준비해야
9日 新年人事會…發展의지 다짐

본회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9일(水) 오후6시30분 鄭在哲회장 崔載九명예회장등 드물게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려 乙丑年새해 회장단과 李鍾範 대학원장 에이고 東國人의 긍지와 굳은 각오, 본회 임원 등 모교 발전을 위한 헌신의 결속력으로 東國중비이 79주년의 乙丑年 새해를 맞으며 東國雄飛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乙丑年이 움비를 다짐하는 만세삼창

모교전신인 惠化專門의 재개교 40주년, 그리고 東國80년을 눈앞에 두는 開校79주년의 乙丑年 새해를 맞이한 이날 신년 하례식에서 鄭在哲회장은 인사를 통해 『동창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이사여러분,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교간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더욱 굳은단결과 뜨거운 동국애로 東國雄飛의 터전을 굳히자』고 당부했다.

이어 黃憲水총장의 인사를 李대학원장이 代讀(黃총장은 故이선근 전총장2주기 추모식관계로 불참)이 있었다.

또한 申益鉉 산부총장은 제13代운영진선임에 따른 임원 추천을 (을) 5월 定總시) · 이사회비납부등 사무국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모교전신 惠化專門의 재개교 40주년, 그리고 東國80년을 눈앞에 두는 開校79주년의 乙丑年 새해를 맞이한 이날 신년 하례식에서 鄭在哲회장은 인사를 통해 『동창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이사여러분,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교간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더욱 굳은단결과 뜨거운 동국애로 東國雄飛의 터전을 굳히자』고 당부했다.

이어 黃憲水총장의 인사를 李대학원장이 代讀(黃총장은 故이선근 전총장2주기 추모식관계로 불참)이 있었다.

또한 申益鉉 산부총장은 제13代운영진선임에 따른 임원 추천을 (을) 5월 定總시) · 이사회비납부등 사무국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신년 하례식에서 鄭在哲회장은 인사를 통해 『동창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이사여러분,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교간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더욱 굳은단결과 뜨거운 동국애로 東國雄飛의 터전을 굳히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英宣、

○ 全國民의 관심속에 제12代 국회의원총선의 막은 올랐다. 11代에 18명의 등○ 문이 당선, 국회부의장과 2명의 장차○ 선을 비롯한 東國은 12석에서는 보○ 委員長을 배출한 東國은 12석에서는 보○ 얼마의 선량을 당선시킬 것인가, 지역○ 구 당선의 험난한고지를 향해 지략하○ 는 동분서주의 신상명세와 ○ 보았다.

◇서울

▲高炳鉉 (59정치) (民韓黨·江西)

民韓黨사무차장으로 再選에 도전한 高炳鉉의원은 再재野시절 집행위원으로 政治入門한 高東原은 아가페광산(주) 전무·동성기업사 대표이사.

▲金鍾大 (62정치) (新韓黨·성동)

7대·11대에이어 세번째 도전한 金東原은 民主부장으로 일관해온 집념의 4·19세대.

재학시절부터 맹렬활동을 벌여온 金東原은 성균학우대의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성균시장회장·뉴서울商街(주)대표·전국노총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본회 상임고문.

▲李元範 (65行政) (民韓黨·열등포)

再選을 다지는 현역·韓·日의원친선협회 한일협정비준한내부투쟁의 선봉장을 맡았던 이른바 「6·3세대」의 기수로 6·3동지회장연임 3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야권연대의장·영진자장등의 경력으로 再선에 도전.

▲安均燮 (80經院) (新社黨·東大門)

4대의원과 新社黨 공천위원장의 관록으로 금번 지에 도전. 삼선개헌반대투쟁으로 일관해왔으며 민주회복투쟁등 對與투쟁으로 구속 전력(대전교도소)과 함께 보회 이사.

◇仁川

▲金殷夏 (52정치) (民韓黨·中區)

11代國會 최다선(6선)의원으로 제1야당총재등 화려한경력으로 金대통령선을 목표로하는, 東國이 낳은 重量級정치인. 맥아 주도력발휘와 온건한 정치적노선으로 20여년의 험난한 야당생활에도 바탕을 다지않았던것이 특징. 국회동우회장·본회 고문등으로 돈독한 인간관계에는 너무도 친숙한 얼굴이기도.

◇京畿

▲李英駿 (59법률) (民韓黨·파주 高陽)

평소 굳게 다져온 표밭에서 재선을 가꾼다. 西獨한인생회장(뮐헨대학원유학시)으로 다져온리더쉽은 파주군체육회장과 재향군인회 파주시회장·파주군민협의회장으로 계속 주택촌 「汶山여중·綜高」이사장으로 육영사업에도 일정, 본회 부회장과 파주동호회장으로 인덕을 기도.

▲趙炳鳳 (67大勝) (國民黨·남양주 양평)

차관급의 官選경력과 야권25세에 京畿道의원당선 총력안로 경기영의정장으로 6백여회의 순회강연을 통해 보여준 탁변가로서의 지평도를 무기로 재선에 도전한다. 회원한 키에스마트한 趙炳鳳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실력행정의 경륜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본회 이사.

▲朴旌植 (68정치) (新韓黨·水原 華成)

선명야당의 깃발을 높이 내건 「참된정치」 3부재 3선반대투쟁으로 6·3투쟁 3선반대투쟁으로 일관해온 투사로 민주화와 농어민보호라는 2대 명제로 서민층에 깊이 어필하고있다.

▲鄭在寅 (76經院) (新韓·포천 여천 가평)

三조로 해득력이 新韓의 간판으로 金배지에 도전. 구 新民黨의원장시절 삼선개헌 反對투쟁으로 옥고를 겪은 선명성이 보인다. 그때의 충격으로 父母가 失明하는등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오뚝이 人生」. 현재 민주회복국민회의 京畿道대변인 대변인 겸 동부지구 부위원장 등 民主투쟁의 대열에 서있다.

◇忠南

▲黃明秀 (53정치) (新韓·천안 아산 천원)

선명야당의 기치를 높이들고 新韓에 입당, 총무위원장의 후광을 업고 三選高地에 진격중. 11代 길을 걸어오면서 구 新民黨 조직국장, 新韓 조직부장 등을 맡아 특히 조직력에도 자신이 있으며 현재본회 이사로 계속 東國과 함께 하는 관계.

▲辛敏善 (63경제) (국민당·영월 평창 정선)

11대에서 2천5백표차로 낙선의 분루를 뿌려야했던 의지의 재도전. 氏族기반과 영월中高등문교위원을 업고 남편을 상대로 善戰하고 있다.

▲朴熙宣 (65법률) (新韓·대덕 연기 금산)

3·15부정선거關聯인물들로 계속 야당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구 新民黨 조직국장, 新韓 조직부장 등을 맡아 특히 조직력에도 자신이 있으며 현재본회 이사로 계속 東國과 함께 하는 관계.

▲黃主相 (81行院) (국민당·大田 동구)

忠南 「信用금고대표」 忠南 출구협회장·新民대전동부지구 부위원장 등 民主투쟁의 대열에 서있다.

◇慶南

▲金東英 (60정치) (新韓·산청 함양 거창)

「선명野黨」의 기치를 높

◇鄭 在哲등문

◇金 殷 夏등문

◇黃 明 秀등문

◇朴 龍 龜등문

◇高 炳 鉉등문

◇李 英 駿등문

◇金 東 英등문

◇林 德 圭등문

◇金 鎭 大등문

◇朴 翊 柱등문

◇邊 炳 佑등문

◇楓 順 範등문

「金明植」向方奏는 東國人의 집념

◇세12내 국회의원 입후보동문

道別	姓名	選區	當選回數	政黨別	地域區
서울	高炳鉉	59정치	제3·5·6·7·8·9·10·11대	민한	서대문구
	金鍾大	62정치	제7·8·9·10·11대	민한	성동구
	李元範	65행정	제9·10·11대	민한	동대문구
仁川	金殷夏	52정치	제9·10·11대	민한	中區
京畿	李英駿	59법률	제10·11대	민한	파주·고양
	趙炳鳳	67정치	제11대	민한	양평
	鄭在寅	76經院	제11대	민한	포천·화성
	朴旌植			민한당탈당	수원·연천·가평
江原	鄭在哲	52정치	제9·10·11대	민한	춘천·고성
	辛敏善	63경제	제11대	민한	초성·양구·인제
	李範俊	80行政	제11대	민한	영월·평창·양양·정선
忠南	黃明秀	53정치	제9·10·11대	민한	천원
	朴熙宣	65법률	제10·11대	민한	아산·논산·연기·금산
	黃主相	81行院	제11대	민한	대전동구·대덕
	朴翊柱	61정치	제9·10·11대	민한	대전중구
慶南	金東英	60정치	제9·10·11대	민한	산청·함양·거창
	朴浚圭	63정치	제9·10·11대	민한	함양·합천·산청
	李尙玫	69行院	제11대	민한	함양·합천·산청
	梁昶植	78행원	제11대	민한	남해·하동·사천·삼천포·진양
	李樂一	73行院	제11대	민한	마산·창원·의창·진해·김해·양산
慶北	黃敏天	78행원	제11대	민한	영주·영양·영풍·봉화
全北	梁昶植	78행원	제9·10·11대	민한	남원·임실·순창
全南	朴龍龜	53사61정73행	제9·10·11대	민한	순천·구례·승주·여천
	李樂一	61정73행	제9·10·11대	민한당	순천·광주·서구

※위명단은本會사무국및신문지상에서 파악한것임

◇서울

▲高炳鉉 (59정치) (民韓黨·사무차장·江西)

民韓黨사무차장으로 再選에 도전한 현역의원. 舊신당·조직력을 역임, 누구보다도 조직력이 강하며 20여년간을 야당에 몸바쳐온 당료출신이기도.

▲金鍾大 (62정치) (新韓黨·성동)

7대·11대에이어 세번째 도전한 金東原은 民主부장으로 일관해온 집념의 4·19세대.

재학시절부터 맹렬활동을 벌여온 金東原은 성균학우대의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성균시장회장·뉴서울商街(주)대표·전국노총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본회 상임고문.

▲李元範 (65行政) (民韓黨·열등포)

再選을 다지는 현역·韓·日의원친선협회 한일협정비준한내부투쟁의 선봉장을 맡았던 이른바 「6·3세대」의 기수로 6·3동지회장연임 3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야권연대의장·영진자장등의 경력으로 再선에 도전.

▲安均燮 (80經院) (新社黨·東大門)

4대의원과 新社黨 공천위원장의 관록으로 금번 지에 도전. 삼선개헌반대투쟁으로 일관해왔으며 민주회복투쟁등 對與투쟁으로 구속 전력(대전교도소)과 함께 보회 이사.

◇仁川

▲金殷夏 (52정치) (民韓黨·中區)

11代國會 최다선(6선)의원으로 제1야당총재등 화려한경력으로 金대통령선을 목표로하는, 東國이 낳은 重量級정치인. 맥아 주도력발휘와 온건한 정치적노선으로 20여년의 험난한 야당생활에도 바탕을 다지않았던것이 특징. 국회동우회장·본회 고문등으로 돈독한 인간관계에는 너무도 친숙한 얼굴이기도.

◇京畿

▲李英駿 (59법률) (民韓黨·파주 高陽)

평소 굳게 다져온 표밭에서 재선을 가꾼다. 西獨한인생회장(뮐헨대학원유학시)으로 다져온리더쉽은 파주군체육회장과 재향군인회 파주시회장·파주군민협의회장으로 계속 주택촌 「汶山여중·綜高」이사장으로 육영사업에도 일정, 본회 부회장과 파주동호회장으로 인덕을 기도.

▲趙炳鳳 (67大勝) (國民黨·남양주 양평)

차관급의 官選경력과 야권25세에 京畿道의원당선 총력안로 경기영의정장으로 6백여회의 순회강연을 통해 보여준 탁변가로서의 지평도를 무기로 재선에 도전한다. 회원한 키에스마트한 趙炳鳳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실력행정의 경륜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본회 이사.

▲朴旌植 (68정치) (新韓·水原 華成)

선명야당의 깃발을 높이 내건 「참된정치」 3부재 3선반대투쟁으로 6·3투쟁 3선반대투쟁으로 일관해온 투사로 민주화와 농어민보호라는 2대 명제로 서민층에 깊이 어필하고있다.

▲鄭在寅 (76經院) (新韓·포천 여천 가평)

三조로 해득력이 新韓의 간판으로 金배지에 도전. 구 新民黨의원장시절 삼선개헌 反對투쟁으로 옥고를 겪은 선명성이 보인다. 그때의 충격으로 父母가 失明하는등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오뚝이 人生」. 현재 민주회복국민회의 京畿道대변인 대변인 겸 동부지구 부위원장 등 民主투쟁의 대열에 서있다.

◇忠南

▲黃明秀 (53정치) (新韓·천안 아산 천원)

선명야당의 기치를 높이들고 新韓에 입당, 총무위원장의 후광을 업고 三選高地에 진격중. 11代 길을 걸어오면서 구 新民黨 조직국장, 新韓 조직부장 등을 맡아 특히 조직력에도 자신이 있으며 현재본회 이사로 계속 東國과 함께 하는 관계.

▲朴熙宣 (65법률) (新韓·대덕 연기 금산)

3·15부정선거關聯인물들로 계속 야당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구 新民黨 조직국장, 新韓 조직부장 등을 맡아 특히 조직력에도 자신이 있으며 현재본회 이사로 계속 東國과 함께 하는 관계.

▲黃主相 (81行院) (국민당·大田 동구)

忠南 「信用금고대표」 忠南 출구협회장·新民대전동부지구 부위원장 등 民主투쟁의 대열에 서있다.

◇慶南

▲金東英 (60정치) (新韓·산청 함양 거창)

「선명野黨」의 기치를 높이들고 新韓에 입당, 총무위원장의 후광을 업고 三選高地에 진격중. 11代 길을 걸어오면서 구 新民黨 조직국장, 新韓 조직부장 등을 맡아 특히 조직력에도 자신이 있으며 현재본회 이사로 계속 東國과 함께 하는 관계.

▲朴浚圭 (63정치) (新韓·함양 합천 산청)

3選·新韓民主黨의원총무·3차례 「自民政黨」의 사무총장등을 중앙급의 요직을 거친 정통야당의 정치인. 현재 본회 이사로 활약중.

▲李尙玫 (69行院) (民韓·진주 삼천포 진양)

10代에 무소속으로 국회에 진출, 11代에서의 재선을 다짐하고 있다. 정치력이 뛰어나며, 최고의 국영기업체 사장을 거쳐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경륜있는 인물로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다. 설득력과 포용력이 있어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있다.

▲梁昶植 (78行院) (民正·南原 任實 순창)

11代에 처음 정계에 진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활약하다 이번 총선에 야당으로 변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정치력이 뛰어나며 최고의 국영기업체 사장을 거쳐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경륜있는 인물로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다. 설득력과 포용력이 있어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있다.

▲李樂一 (73行院) (民正·光州 西區)

11代 全國區의원과 言論界·학계·변호사·민정·민주·민한·국민·신민·민주정의·민주한국·민주농민·민주사회·민주·민주당·민주·민주·민주

友情의 손 맞잡고 東國결속 재확인

각급 單位東友會 年末모임 풍성

□行政大院

행정대학원 동창회 송년의 밤이 지난12월22일 오후 6시30분 타워호텔에서 2백여생의 동문부부 학생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동회는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자랑 · 행운권추첨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이어져 오후 9시30분 폐회되었다.

◇李斗世회장

□慶州支部

慶州支部회장=朴廣庚·65본교) 에선는 지난 13일 오후6시 東海舍館에서 경주「동국인의 밤」행사를 가졌다.

鄭俊和 金光彌등동문들은 회 회원과 金仁鴻경주캠퍼스관장등 교직원을 포함,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장기자랑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惠門會

惠門會(회장=金鍾聲·48해전·柚林商事회장) 송년의밤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8일 오후3시 林亭(회계5가) 에서 열렸다.

최고 선배들인 惠化專門출신 同門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동회는 혜선로 진행되었다. 특히경주캠퍼스 졸업동문들이참석「우리는 한나-영원한 東國人」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經營大院

經營大學院 동창회(회장=李洪培·9기·普星工業대표·송년의 밤이 지난 12월12일 오후6시엔 베서머호텔2층 메인볼룸에서 열렸다.

지난 5월 李洪培회장의 취임이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同會는 이날 송년행사에서도 1백10여명의 동문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도 東國經營人의 긍지로 회활성화와 무교발전에 적극동참하자」고 강조했다.

東國中興을 다짐하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李宗鎭(9기) 씨재구(20기) 씨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李洪培회장

□第一銀行

第一은행 동우회(회장=鄭赫·50경제·상임본지 점장) 정기총회겸 송년파티가 지난 12월14일오후 7시 대림정(회계5가)에서 열렸다.

韓德均(72경영)부회장林鎰旭(65경제)감사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鄭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른 支店에비해 특히 두드러진 최고인적자원 결속력은 뒤돌아볼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서로돕는 同門社會를 이룩나가자고당부했다.

◇鄭 赫회장

□國會

國會 동우회(회장=金鍾聲·63상대) 송년의밤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임원의 유임과 장학기금적립에 관한 회칙개정 등 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동회는 장기자랑 · 행운권추첨 · 노래자랑 등으로 흥겨운 분위기속에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金鍾聲회장

□保證基金

신용보증기금 東友會(회장=朴在圭·60경제·구로지점) 정기총회가 지난 12월8일 오후5시 영빈관(구로동)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임원의 유임과 장학기금적립에 관한 회칙개정 등 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논의되었다.

◇朴在圭회장

□韓一銀行

한일은행 동우회(회장=金炳浩·인천 남지점장)는 지난12월13일 한일관(명동)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회장에 張誠一(69상대·강남지점장)씨를 선출하는등 임원개선을 가졌으며, 새회원을 맞아 친목을 도모한 한자리였다.

◇張誠一회장

□警行科

警行科동창회 (회장=李瑛珮·1기) 송년의 밤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8일 오후5시 모교 東友會館 에서열렸다.

▲회장=張誠一(69상학·강남지점장) (592) 2123

▲간사장=金榮在(69법학·종로5가大興) (2621914

▲간사=林興雨(75경제·외환업무부 대리) 李申洙(81경제·외환업무부 계지점 계장)

□해태제과

해태제과 동우회(회장=崔聖憂·72 식품생산부장) 송년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6시30분 임원소재 「시월회관」에서 열렸다.

회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모임에서는 새로 부임한 임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며, 또한 李瑛珮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1천만원씩 성금을 내놓아 불우이웃돕기 등 보람있는 동회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다짐하였다.

◇李瑛珮회장

□東大新聞

모교 東大新聞 지령9백호 축하연이 지난 12월 8일 오후 6시 모교 교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현직 교수 · 재학생 · 동문 · 역대 주간, 編集局원을 포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9일 모교수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崔命國(55국문) 李敏(58국문) 林德珍(60국문) 등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장학기금적립에 관한 제반사항이 논의되었다.

◇李瑛珮회장

□法曹人會

法曹人會(회장=申相玉·64법·법무부 심의관) 정기총회겸 망년회가 지난 12월20일 오후7시 대반점에서 열렸다.

이날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회원들이 한때나마 주택, 직장, 가정 등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장=申相玉 (한국문인협회부회장 · 시인)

◇부회장=金敏 (금성출판사 편집국장 · 시인) ◇尹炳喆(63경제·동국증권 감사) ◇李瑛珮 (67경영·모교경리과장)

◇黃 命회장

□愛敬油脂

愛敬油脂 東友會(회장=金敦杓·73경영·삼륜관리 과장) 는 지난 12월19일 「대우원」에서 4/4분기 정기총회를 가졌다.

同會는 분기별 모임이외에도 회원 경조사마다 전원이 참석하는 끈끈한 동우애로 뭉쳐져있으며, 본회와도 긴밀한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모범적 동우회로, 지난 13회 東友會가 발행하는 회보를 발기 도움을 주고 있다.

◇金敦杓회장

□唐津郡

당진군동우회(회장=閔常植·61문본) 정기총회겸송년의 밤이 지난18일(火) 오후 6시 전원예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許尤旭(63·화학)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또한 부회장에 김동기 · 부부 · 부부 등이 선출되었다.

◇柳潤魯회장

□農學科

농학과 農學회 (회장=柳周魯·61문·農田진흥대표) 정기총회겸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8일 오후4시 모교 東園館교수식당에서열렸다.

◇尹炳均(61년·全羅防腐대표) 동회부회장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회활성화와 동문친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東國 긍지로 會活性化 다짐

다양한 여흥통해 東國家族 우의확인

(昨年 상무전신부는 90%이상)을 자랑하는 同會는 이날회원수첩을 발간하여 회원전원에게 배부하기도 했는데 당회비및 회장단 찬조금으로 會議경비를 충당하고 年會費는 전액적립하나가고 있어 탄탄한 살림을 운영중. 宋寶烈(57경제 상임이사·殷賑)

◇鄭 赫회장

부회장. 同行內 他大學동창회에 비해 가장 돋은 참석율을 보였다.

◇1984년을 마무리하고 乙丑年새해를 맞이하는 송년모임 참석하였다. 이 각 支部·支會별로 열려 東國人의 결속을 재확인했다.

獎學基金등 母校발전기여

유공표창·長技자랑·행운권등 多彩

(특히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기증했다.

15명의 選良과 20여명의 구성, 짜임새있는 동회활동을 계속해온 同會는 국회내 他大學 동창회의 부러움을 사고있을 정도로 의의 모범적회로 성가가고 있어 동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동회활동에 공로가 큰 회원들을 선출하는등 임원개선을 가졌으며, 새회원을 맞아 친목을 도모한 한자리였다.

◇朴在圭회장

□韓一銀行

한일은행 동우회(회장=金炳浩·인천 남지점장)는 지난12월13일 한일관(명동)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회장에 張誠一(69상학·강남지점장)씨를 선출하는등 임원개선을 가졌으며, 새회원을 맞아 친목을 도모한 한자리였다.

◇張誠一회장

□警行科

警行科동창회 (회장=李瑛珮·1기) 송년의 밤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8일 오후5시 모교 東友會館 에서열렸다.

▲회장=張誠一(69상학·강남지점장) (592) 2123

▲간사장=金榮在(69법학·종로5가大興) (2621914

▲간사=林興雨(75경제·외환업무부 대리) 李申洙(81경제·외환업무부 계지점 계장)

□해태제과

해태제과 동우회(회장=崔聖憂·72 식품생산부장) 송년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6시30분 임원소재 「시월회관」에서 열렸다.

회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모임에서는 새로 부임한 임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며, 또한 李瑛珮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1천만원씩 성금을 내놓아 불우이웃돕기 등 보람있는 동회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다짐하였다.

◇李瑛珮회장

□東大新聞

모교 東大新聞 지령9백호 축하연이 지난 12월 8일 오후 6시 모교 교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현직 교수 · 재학생 · 동문 · 역대 주간, 編集局원을 포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9일 모교수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崔命國(55국문) 李敏(58국문) 林德珍(60국문) 등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회활성화와 동문친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李瑛珮회장

백발 老先輩·패기의 後輩 한데 어울려

한해회포 東國雄飛 다짐

◇柳潤魯회장

◇부회장=金敏 (금성출판사 편집국장 · 시인) ◇尹炳喆(63경제·동국증권 감사) ◇李瑛珮 (67경영·모교경리과장)

◇黃 命회장

◇회장=申相玉 (한국문인협회부회장 · 시인)

◇法曹人會

法曹人會(회장=申相玉·64법·법무부 심의관) 정기총회겸 망년회가 지난 12월20일 오후7시 대반점에서 열렸다.

이날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회원들이 한때나마 주택, 직장, 가정 등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회장=金敏 (금성출판사 편집국장 · 시인)

◇부회장=尹炳喆(63경제·동국증권 감사) ◇李瑛珮 (67경영·모교경리과장)

◇黃 命회장

◇회장=申相玉 (한국문인협회부회장 · 시인)

◇法曹人會

法曹人會(회장=申相玉·64법·법무부 심의관) 정기총회겸 망년회가 지난 12월20일 오후7시 대반점에서 열렸다.

이날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회원들이 한때나마 주택, 직장, 가정 등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柳潤魯회장

□農學科

농학과 農學회 (회장=柳周魯·61문·農田진흥대표) 정기총회겸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8일 오후4시 모교 東園館교수식당에서열렸다.

◇尹炳均(61년·全羅防腐대표) 동회부회장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회활성화와 동문친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柳潤魯회장

□農學科

농학과 農學회 (회장=柳周魯·61문·農田진흥대표) 정기총회겸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8일 오후4시 모교 東園館교수식당에서열렸다.

◇尹炳均(61년·全羅防腐대표) 동회부회장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회활성화와 동문친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85년부터

大學院 증과·증설

일반대학원 석사 3, 박사 4個科等

전형끝내

慶州에 한의학과 신설도

85학년도 모교 大學院(특수·일반대학원 포함) 증과·증설 및 비롯,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에 4개학과가 신설되고 박사과정에 3개학과, 석사과정에 4개학과가 신설되어 모집정원도 90명이 증원되어 총 1천6백99명으로 금년보다 1백20명이 증원됐다.

또 지난해 12월 전격 발표를 통해 모두 마친 대학원 증과·증원사항을 보면 경희대학원은 행정대학원은 물론 한의학과가 신설되는 것 외에 어났고 경영대학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1개전공이 늘고 10명이 증원되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학석사과정의 1개전공신설에 20명이 증원되어 특수대학원은 모두 3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신설학과(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계열 42학과 5백52명)=신설학과=독어독문, 일어일문, 한의학과 (경희)

▲석사과정 (3계열31학과 2백67명) 신설학과=무역, 회계, 통계, 경정학과 (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과정 (4개학과15전공 3백명)=전공신설=사회복지, 언론홍보, 북한학, 사법행정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과정 (7개학과20전공 3백명)=전공신설=교육학석사과정 (2개학과21전공 2백80명) 전공신설=철학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과정 (2개학과 2백명)=전공신설=체육교육전공

"총학생회 復活움직임"

학국단중심 3·4월중 총선있을듯

「총학생회 부활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등 학원가에 총학생회 부활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난 한해 각종 학생회가 시작되는 3월달을 중심으로 구성체제 확립을 꾀하고 있다고 「총학생회」를 보이고 있다고 금년 신년호에서 모교 東大新聞이 보도했다.

「총학생회」 부활 논의는 이미 지난 한해 각종 행사와 토론회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학원자율화 추세에 따른 총학생회 부활 조짐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학생회 부활에 따른 총선은 오는 3월중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총학생회장 선출과 함께 학생회 조직 구성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2천5백명 졸업예정

「졸·정·제」 첫세대는 1천6백여명

25日 學位수여식

84학년도 모교 졸업(학위수여)식은 오는 2월25일 오전10시30분 교내 체육관에서 거행된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부 졸업생 2천5백여명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취득자 3백여명 등 총 2천8백여명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게 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지난 82년 3월 입학, 4년간 학부과정을 이수한 「졸·정·제」 첫세대 졸업생들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계열 42학과 5백52명) 신설학과=독어독문, 일어일문, 한의학과 (경희)

▲석사과정 (3계열31학과 2백67명) 신설학과=무역, 회계, 통계, 경정학과 (외대)

東國人 4천3백72명 선발

3·7대1 首席은 유인환(東大附高)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모교 체육대학을 비롯 전체적으로 3·7대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 23일 발표된 모집(慶州캠퍼스포함)에 1만6천18명이 지원, 평균 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모집정원은 4천3백72명으로 지난해 4천3백57명에 비해 15명이 증원됐으며 지원자는 7백57명이 증가, 2만0백여명이 지원했다.

모집단위별 지원자를 보면 불교대학 불교학과 3.2대1,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1.6대1, 영어영문학과 1.7대1, 불어불문학과 1.5대1, 독어독문학과 2.2대1, 노어노문학과 2.2대1, 이과대 수학과 2.2대1, 물리학과 2.2대1, 화학과 2.2대1, 생물학과 2.2대1, 지구과학과 2.2대1, 법정대 법학과 1.6대1, 정치외교학과 1.7대1, 무역학과 2.2대1, 경상대 경영학과 2.6대1, 회계학과 2.6대1, 경제학과 2.5대1, 농과대 농학과 2.3대1, 농화학과 2.2대1, 축산학과 2.2대1, 농업경제학과 2.2대1, 공과대 건축공학과 2.2대1, 토목공학과 2.2대1, 기계공학과 2.2대1, 전자공학과 2.2대1, 화학공학과 2.2대1, 섬유공학과 2.2대1, 시범대 국어교육과 1.4대1, 영어교육과 1.4대1, 사회교육과 1.4대1, 교육학과 1.4대1, 체육교육과 3.5대1, 가정교육과 3.5대1, 2부대 문학부 4.3대1, 사학부 3.4대1, 철학부 3.9대1, 정치외교학부 3.5대1, 경제학부 3.5대1, 무역학부 3.5대1, 경상학부 3.5대1, 법학부 3.5대1, 행정학부 3.5대1, 경찰행정학부 3.5대1, 사회복지학부 3.5대1, 경영대학원 3.5대1, 행정대학원 3.5대1, 교육대학원 3.5대1, 특수대학원 3.5대1, 慶州大 불교학과 1.6대1, 국어국문학과 3.6대1, 영어영문학과 3.7대1, 불어불문학과 3.6대1, 독어독문학과 3.6대1, 노어노문학과 3.6대1, 사학과 3.7대1, 철학과 3.8대1, 정치외교학과 3.7대1, 경제학과 3.7대1, 무역학과 3.7대1, 경영학과 3.7대1, 법학과 3.8대1, 행정학과 3.8대1, 경찰행정학과 3.8대1, 사회복지학과 3.8대1, 경영대학원 3.8대1, 행정대학원 3.8대1, 교육대학원 3.8대1, 특수대학원 3.8대1, 慶州大 체육학과 3.7대1, 영어학과 3.7대1, 일어학과 3.7대1, 중국어학과 3.7대1, 국제통상학과 3.7대1, 관광학과 3.7대1, 전자계산학과 3.7대1, 경영정보학과 3.7대1, 국제경영학과 3.7대1, 경영대학원 3.7대1, 행정대학원 3.7대1, 교육대학원 3.7대1, 특수대학원 3.7